

중년이 되면 많아지는 병, 의학이 발달해도 아직 그 원인을 모르는 병이 많이 있다. 중년이 되면 많은 신경통이나 류마치스 그리고 미계학등도 왜 생기는지 모르고 있다. 이처럼 현대 의학도 모르는 것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맹장염이라 해도 잘 조사해 보면 영화 배우들은 촬영이 끝나서, 군인들에게는 전투가 끝나서와 같이 긴장이 있는 뒤에 압도적으로 많이 생기는데 그 원인을 모르고 있고, 처녀들이 선보려 오면 기침발작, 천식발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긴장되어서 그럴까? 왜 긴장되면 그런 것이 발작하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리하여 이런 경우에는 치료 방법도 없는 것이다.

현대 의학은 병균을 찾아내어 이를 죽이는 방법을 크게 진보시켰다. 폐염이나 화농도 페니시린으로써 방지할 수 있게 되었고 결핵에 잘 듣는 약을 발명하여 사람들은 10년 전에 비하여 20년 이상이나 오래 살게 되었다.

그런데도 병균에 의하지 않은 질병

에 현대 의학이 손을 들고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이 질환의 본체를 밝히는 작용으로써 나타나는 것이 스트레스 학설이다.

이 학설에 의하면 인체에 가해진 자극은 모두 뇌하수체를 움직여 ACTH라는 홀몬을 분비케 하고 이것이 부신 피질에 작용하여 피질홀몬(코티손)을 분비시켜 이것이 전신의 활동을 조정하는 것이라 한다. 이 작용을 스트레스 작용이라 한다.

이러한 스트레스 작용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바란스가 무너져 병균 없는 질환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자극은 온도, 습도, 소음, 정신 긴장, 기아, 걱정, 무엇이라도 좋다.

스트레스는 항상성보지기능, 자연양능이라는 말로써 표시되고 물리학에서는 밖에서 가하는 힘을 스트레인이라고 하고 안에서 이를 받아 원상으로 회복하는 힘을 스트레스라고 한다.